



Ssorin Chaikov 교수 초청 강연회: Temporal multiplicity, Lenin and the gift : a brief anthropology of time

지난 11월 5일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중앙대학교 RCCZ 접경인문학연구단과 공동주최로 니콜라이 쏘린-차이코프(Николай Владимирович Ссорин-Чайков, 국립고등경제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캠퍼스) 교수를 모시고 "시간의 다중성, 레닌과 선물: 시간의 인류학적 개관(Temporal multiplicity, Lenin and the gift: a brief anthropology of time)"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시베리아 아(亞)북극 지역의 사회적 생활(The Social Life of the State in Subarctic Siberia)』, 『지도자에게 바치는 선물(Дары вождям)』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러시아와 미국 등지에 알렸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최신작 『두 레닌: 시간의 인류학적 개관(Two Lenins: A Brief Anthropology of Time)』을 바탕으로, 인류학이 세계의 역동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을 사회 및 공간과 더 적극 연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그 근거로 쏘린-차이코프 교수는 1917년 혁명 후 소비에트의 '시간성(temporality)'이 미국 등 자본주의 사회의 시간관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든다. 특히 그는 아몬드 해머(Armand Hammer)와 레닌 간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아몬드 해머는 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1920년대부터 소련을 상대로 독점에 가까운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인물로, 러시아로부터 보석, 조각 등 다량의 예술품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그 중 상당수를 생애 말년 에르미타주에 양도할 만큼 재산을 모았지만, 죽기 전까지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도 했다. 그가 레닌과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21년 여름, 아버지가 운영하던 상회의 심부름으로 러시아로 곡식과 약품을 판매한 일이었다. 그 해 모스크바는 내전과 볼가 강의 대기근이 한창이었고, 기차편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정지와 지연이 잦았다. 수 달 동안의 지연과 대기, 굶주림에 지친 해머는 '곡식으로 인해 허비한 세월은 무료일 뿐, 지불받지 못할 것이다'는 말과 함께 물품을 보낼 수 없다는 청원을 보낸다. 결국 그가 기다리던 레닌과의 회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레닌은 그 동안 해머가 허비했던 시간을 보상하듯 앞으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신을 만날 수 있고, 해머를 위한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애초 반년만 러시아에 머물 예정이었던 해머는 이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대규모 무역을 성사시키고 석면 채굴권 등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강연자가 주목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 사회에서 '시간'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아몬드 해머에게 시간이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무료로 제공해야만 되는 상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소비에트 사회에서 '시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market time),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state time)이 된다. 레닌과 만나기 전에는 기차의 지연이나 행정상의 대기 등으로 사업이 하염없이 느리게 진행되어 갔지만, 레닌이라는 권력의 중심과 가까워지는 순간 그 진행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게 된 것이다. 인류학 개념으로 정리할 때, 최고 권력자 레닌은 러시아를 위한 구제 물자 제공으로 시간을 '써 준' 해머에게 '선물'로서 '시간을 증여한(gift time)' 것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시간' 개념의 이러한 차이는 마르크스 이념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신의 재림, 종말의 순간이 중시되는 '기독교적 시간'과 달리, 다윈의 진화론은 '진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시간 개념을 이끌어냈다. 엥겔스는 다윈의 이러한 발견을 철학적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다윈이 유기 생명체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다면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역사적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물학적 '시간' 개념과 다른 사회적인 차원의 '시간' 개념을 분리하였다. 소비에트 혁명은 러시아 사회에 소련의 시간이 세계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시간과 다른 흐름 안에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는 소련이 미국 등과 외교관계를 과감하게 단절하는 원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인이 되었다. 이 점에서 소련 사회의 '시간' 개념은 성경 속 모세의 경우와 같은 '신화적' 시간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쓰린-차이코프 교수는 이 서로 다른 '시간'의 개념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성'의 '다중성'(multiplicity)을 인정할 경우 '시장적 시간'과 '국가적 시간', 또는 '다원적 시간'과 '마르크스적 시간'은 서로 중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자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성을 지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공간, 사회의 유형과 같은 다른 범주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바흐찐의 '호로노토프' 개념을 들었다. 강연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시간성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개념은 '모더니티'였고, 러시아 사회에서는 유독 지도자의 교체가 '시간' 개념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사회를 맡은 채수홍 교수는 강연자가 익숙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데 감사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